



1 충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 '2021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도민 권익 위해 의정 전문성 강화” 조례 사후평가제 도입·예산 감시 기능 제고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과 도정 정책 제언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2021년 충청남도 주요 사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1년 주요 사업 분석'과 '행정사무 감사 처분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로 구성했다.

도의회는 충남도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예산 규모,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42개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현황과 제1대 도의회에서 계속 제기된 처분 요구사항을 정리해 후속 조치를 점검·평가할 수 있게 했다.

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사후 평가를 위한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조례 사후 입법 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해 자치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도의회는 입법 평가체계 개발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제·개정 이후 3년이 넘는 조례 25개를 대상으로 사후입법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188개 조례 평가 분석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는 연내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입법평가제도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혁신을 위한 충남도의회 예산분석 대응 노력도 돋보인다. 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사무처에 예산정책담당관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충남도 예산 운용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또 예결산 분석보고서 제공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안 비용 추계 등 의회 예결산 기능의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김명선 의장은 “도의회는 상임위 확대에 이어 예산·홍보 전담 조직 신설과 입법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회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심층적 도정 제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❶

